

경전공부 한다면서 글자에만 얽매이니 참뜻 알기 힘들어요 몸으로 읽고 행해야

한 동경과 서원이 강렬하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서원을 품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는 즉시 구제의 손길을 뻗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 결국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경전 공부의 궁극적 목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보살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은 능히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가람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발을 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때, 그 사람이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해 보세요. 당신이 발을 놓을 곳에 내가 발을 놓았다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보살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살심은 반야에서 나옵니다. 분별력 차원의 지식과는 다르지요. 반야는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동이 감동이 상재로 있을 때는 분별의 상태이지만, '사랑을 했더라'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야라는 건 그와 같이 너와 나라는 분별이 사라진 대비심에서 나옵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대비심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대비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즉 반야란, 너와 내가 하나 즉 동체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수회(隨喜)라는 말도 '따라 기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 역시 '내가 그 속으로 들어

하나의 번뇌인 것이지요.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은 게 아니라 조복 받으신 것이지요. 한자로 '단(斷)'이라 표기된 것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탓에 끊어라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관(觀)'도 볼 관자로만 새기면 곤란해요. 관세음보살 하면 '본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세상 소리를 본다? 이 세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뭐냐. 온몸으로 체득을 한다고 해야 맞는 번역이 됩니다.

- 또 막막한 것이, 불교를 일러 다 경전 다방편의 종교라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 무엇을 봐야할지도 보통 고민이 아닐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경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침 오늘 대담의 주제가 선과 교의 관계니 만큼 그 둘을 아우르고 있는 <법화경>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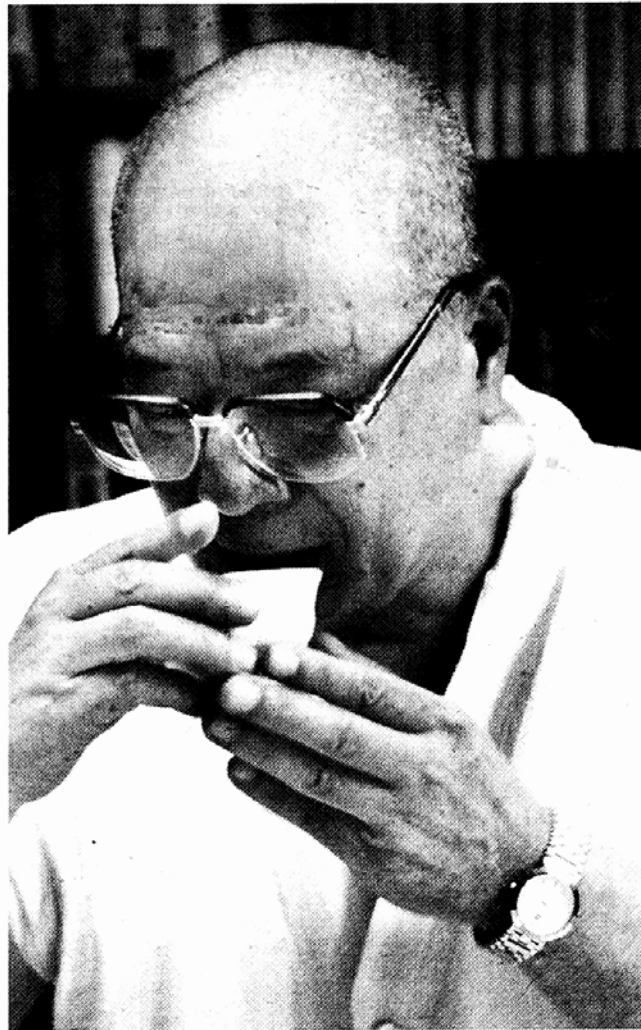
원래 법화경에는 선과 교가 같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상문(敎相門)과 관심문(觀心門)이 함께 갖추어진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예로 법화경에서 나온 것이 마하지관 아함니까. 이런 법화경은 고래로부터 화엄경과 함께 쌍벽을 이루며 널리 독송되어 왔습니다. 우주의 진리인 일승모법이 실재하고,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실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전이 승승한 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이나 <약왕보살본사품> 등에서 제시하는 보살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한번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에 의해 일곱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실재해 있는데, 이는 결코 이름을 부르면 복이 온다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그분과 마음이 통하면 자연히 구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대승을 말하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니다. 단순히 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동경과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

번뇌 끊는 것 아닌 뛰어넘을 뿐 보살도는 마음 아름답게 하는 것

간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가 곧 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기뻐하는 곧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코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살행의 최고 형태가 바로 '동체대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걸 갈라놓고 보니 나와 너, 자연과 인간, 시간과 공간 등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나 아닌 모든 사람은 경쟁의 상대일 뿐이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생들과 무생물도 가름의 차원에서 구분짓지 않습니다. 무정과 유정이 있을 뿐, 다 살아있는 존재로 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무기질에도 생명이 있다는 건 과학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해경 스님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경전을 가르칠 때도 항상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보살행으로 나아가길 것을 강조한다.

가지 행을 하는 것이 보현인 것이지요. 관음과 세지를 다른 것으로 알아서도 안됩니다. '관음' 하고 부르니까 세지가 대답을 했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음은 마음이고 몸통이는 세지라. 지혜로서 중생의 고뇌를 체득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 그것이 곧 대세지인 것입니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님을 체득하는 것이 반야일진대, 반야를 추구하는 선이 반야의 그릇인 교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끝으로 무설일자(無說一字) 즉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노라는 말씀의 참뜻을 여쭙는 것으로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대로가 진리이니 설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임을 알면, 꽃을 부처로 볼 수 있겠지요. 꽃이 어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가릴까. 차 별 없이 향기를 뿜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불법 수행입니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허연 스님

나에게는 할아버지뻘 되는 사제(師弟) 스님이 한 분 있었다. 지난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으로 전국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 투박한 평안도 사투리의 사제스님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졌다. 그에 대한 추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허연(虛然)스님, 아마 살아 계시면 세수는 95세 법랍은 20년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된다. 고향은 평안도라는 것 외에 아는 것이 없고 1.4 후퇴 당시 월남단원으로 월남하여 38선 때문에 남은 세월 방향의 한을 품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신 분이다. 옛장수로 전국을 떠돌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 늦게 출가하여 사제가 된 노스님인데 어찌됐건 손자뻘 되는 주변스님들에게 항상 깎듯이 사형의 예를 갖추곤 했다.

은사스님께서 인척도 없이 오갈데 없는 노인이니 그래도 부처님 품에서 거두면 밥은 굶지 않을 거라면서 소개를 시켜 주셨다. 잘 돌봐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면서, 비슷한 연배의 사형사제들은 뜻밖의 할아버지 사제를 두게 되자 잠시 술렁거림 속에서도 은사스님께 여쭙어 나이 많은 스님을 상대로 할 수 있는나고 반문했지만 은사스님께서는 가니격정하는 노인을 밖으로 내칠 수 없다 하시면서 어린 우리들에게 지비심으로 동의를 구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살아온 할아버지뻘 늦깎이 사제

한 번은 운문사 대비암에서 보살계 산림법회를 할 때인데 허연스님의 나이가 을사 스님들보다도 더 많으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강원도 학인스님들이 대종방에 인사하러 와서 계단(戒壇)의 을사 스님들을 의연하고 당시에는 행자였던 그 앞에 와서 삼배를 올린 것이다.

사미계를 수지하려 왔던 그가 절집 정서를 알지 못해 당황하는 기색에 얼골까지 창백해지고 있었는데 장년기가 있던 사형스님이 그대로 절을 받으라고 옆구리에 신호를 보냈다. 어정쩡한 자세로 절을 받는 모습이란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계사스님이었던 일우(一愚), 종수(宗秀)스님께서 저 스님은 누군고 라고 물었을 때, 은사스님으로부터 차조지종을 들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셨던 기억이 난다.

자비문중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곳이 부처님 도량이라고.

나에게 있어서 그것도 칠순이 넘어 절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속에서 익혀왔던 습관들을 쉽게 털어 낼 수가 없었다.

그런 연유에서 손자, 아들 뻘 되는 스님들에게서 '종숙한이'라는 마음 아픈 소리로 들곤 했지만, 워낙 타고난 녀석이 있었기에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이 70 넘은 노스님들은 계(戒)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정언(傳言)에 의해서 때로는 곡차도 몰래 사다드렸고 육질과 관련된 은사스님 몰래 갖다 드리기도 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늦깎이 사제에게 모두들 수행자로서의 냉정함 보다는 자식 같고 혈육같은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곤 했다.

그러다보니 다른 스님들보다 사형되는 스님들에게 더욱 더 가족같은 친근감을 표시했다. 때로는 친근함이 지나쳐 출가인이라는 본분을 벗어나 연로한 노인 특유의 투정어린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때면 스님들은 능담한 진담반으로 '늦깎이는 할 수 없어'라는 말로 이곳을 엄연한 부처님 도량이라는 사실을 주시시켰다. 그래도 젊어서 만주에서 보냈던 시절을 이야기 해 보라고 하면 신명이 나서 예뻐한 기성 이야기며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끝까지 해주곤 하였는데 도중에 눈가에 고인 눈물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돌리곤 했다. 이내 긴 한숨으로 이야기를 끝내고는 "꼭차 없습니까"를 연발하곤 하였다.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삼기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즐거움이었지만 나중에는 형언키 어려운 아픔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눈시울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기울이 워낙 장대하고 젊은 사람 못지 않게 힘이 세었는데 발을 헛디뎠더니 허리를 다치고 나서는 급격히 시력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위 스님들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



그림·문병성

린아이처럼 짜증이 늘기 시작하더니 정을 떨려고 작정을 했는지 막무가내일 때도 있었다. 누구나 마친가지겠지만 좋은 아플 때 가장 외롭고 힘들다. 그 누구하나 일별도 주는 이가 없을 때 더욱 그렇다. 혼자 중풍 앓다가 일어나야만 한다. 병상의 문을 두드리면 "아이고 죽았시오", "일 없시오"를 수많은 되뇌이며 긴긴 겨울 밤을 지새웠던 그를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사형 한 분이 그 곁에 있었지만 뒷날 소식에 의하면 허리가 웬만해지지 정처없이 떠났다고 한다.

"무슨 노인네가 가사 걸치고도 열병 한 번 하는 것을 못보니 짙에 와서도 박박한 짓만 한다"고 쌀쌀하게 쏘아대던 내 모습이 한없이 아슬하다. 몇 년을 한술밥 먹으며 살아 왔는데 떠나올 때 그야말로 절연(絶緣)하듯 떠나왔으니 '인간 못된 것 중년대(?)'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어릴 때부터 정이 많으면 중노릇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에 얼골은 애써 평상시 표정인데 눈가에 고이는 눈물은 어쩔 수 없다.

"89년도인가 영천 성모병원에서 김익현 노인이 누구냐고 연락이 왔길래 가보니까 이미 무연교자로 처리되어 화장을 한 후야. 그래서 제사만 지내줬어." 지리산에 있는 사형에게 연락을 해보니 허연스님은 10여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했다.

Advertisement for 'A Little More Carefully Living is Also Living' (약간 비딱하게 사는 것도 바로 사는 것이다) by Damwon Seokhye-gyeong. The ad features a black and white photo of a man reading,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HNP Publishing (HNP출판사) and a website URL (http://www.hnp.co.kr).

Advertisement for 'Mindful Meditation' (무심행 禪체조) by Jeon Seon-cho. The ad features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HNP Publishing and a website URL (http://www.hnp.co.kr).